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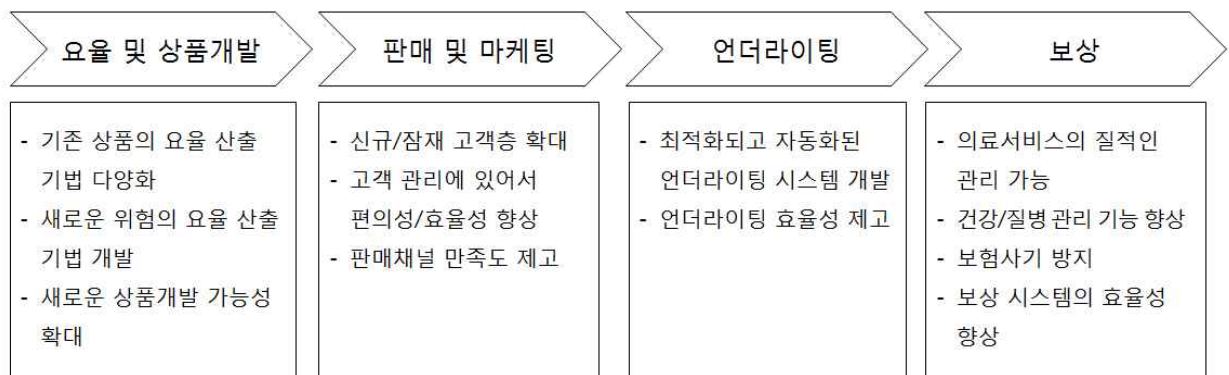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최 원 선임연구원

■ Munich RE는 빅데이터 관련 소고를 통하여, 빅데이터가 요율 및 상품 개발, 판매 및 마케팅, 언더라이팅, 보상에 이르는 보험산업 전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¹⁾

- 광범위한 수준의 데이터를 유용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산업도 예외일 수는 없음.

〈그림 1〉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자료: Munich RE.

■ 요율 및 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기존 상품 및 새로운 위험에 대한 요율 산출 기법이 다양화되고, 내부 또는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임.

- 정확한 요율 산출이 어려웠던 기존의 비정형화된 특정 위험도 웹 기반의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요율 산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1) Fabian Winter(2015. 1), "Big Data - An Immense challenge", TOPICS MAGAZINE, Munich RE.

- 이미 기후 관련 데이터를 접목하여 해당 지역의 기후 변동을 고려한 농작물 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운전자 습관 등을 고려한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셜미디어 등을 통하여 잠재 보험소비자 행동 방식을 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와 융합하여 잠재 보험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함.
- 판매 및 마케팅 단계에서는 신규 또는 잠재 고객층 확보가 용이해지고, 고객 관리의 편의성과 고객 만족도가 모두 향상될 것임.
- 소셜미디어 등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 보험소비자의 행동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잠재 보험소비자 집단의 보험 가입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음.
 -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족도가 향상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고객에 대한 유지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개선을 통하여 신규 수요 창출도 용이해질 것임.
- 언더라이팅 단계에서는 더욱 최적화되고 자동화된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음.
- 보험가입자들이 제공한 정보와 빅데이터를 융합하여 위험 분석과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자동화된 언더라이팅 시스템 개발이 가능함.
-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과다한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나 보험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임.
- 건강 및 질병 데이터 관리 시스템(DMPs: Disease Management Programmes) 등을 활용하면,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보험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어 보험회사들의 손해율 관리에 기여할 것임.
 - 빅데이터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정량화하는 기법의 정밀도를 개선하여 향상된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보다 정확하고 빠른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가능하게 하여 비용절감과 보상 단계에서의 보험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것임.
- 앞으로 보험산업에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은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및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투자 대비 불확실한 수익성 등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요구 받을 것임.
- 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또는 규제의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보험회사들이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Munich RE 등)